

한국의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회

77 | 월간

영육이 아울러 풍년을 맞이합시다

(성경/마태복음 13: 1~9)



김 창 인 목사(당회장)

1977년 신년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현의 성도들은 영육이 아울러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 풍년의 성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나라 온 교회가 열매를 맺고 국가 모든 산업 부문에도 발전이 있는 풍년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년은 농부가 좋은 씨앗을 준비해서 때를 놓치지 않고 심고 하나님이 적당한 이슬과 비를 내리며 적당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을 주시면 됩니다. 백성이 배부르고 인심이 부드러워지는 평안은 너무나 좋은 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풍년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풍년을 맞이하려면,

먼저 좋은 씨앗을 기회 놓치지 않고 정성껏 심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떠나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시려고 땀 흘리시고 오해와 억울함과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붉은 피를 흘려 주신 분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마 13: 37)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씨앗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앗을 정성스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심어주어야 할 분들이 영생케 하는 생명의 씨앗을 쥐고 놓고 공자·맹자나 천학가의 생명 없는 말을 대신 뿌리고 있음은 안타까운 불행입니다. 충현의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는 분들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려고 외사술을 차고도 험한 바다를 건너면서 감옥에서 굶주리고, 가시나무에 옷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 서 아시아로 구라파로 떠난 사도 바울처럼 개인의 욕심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이 불의한 사업을 정리해 버리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듯 구급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습과 당파싸움, 불의한 욕심을 버리고 생명의 말씀의 영육간의 풍년을 위해 땀과 눈물을 섞어 씨앗을 바로 뿌려야겠습니다. 풍년이 들려면 또한 좋은 밭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라도 땅이 좋아야 열매를 맺지 땅이 나쁘면 종자는 허비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사람의 마음밭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첫째 나쁜 밭, 길바닥이 있습니다.

길은 사람 다니기에 좋고 자동차 다니기에는 좋지 않은 곡식을 키울 수 있는 곳은 못됩니다. 길에 뿌려진 씨앗은 차바퀴에 으스러지거나 새가 쪼아 먹으면 없어집니다. 또 길은 누구나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울타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파숫군을 세워놓고 풀라서 먹고 배우며 교제하는 분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바닥 같은 마음이란 분별 없이 배우고 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은 자유지만 자유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권리 없는 사람의 자유는 방종이요 사람은 누구든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충현의 성도들이여, 오늘부터 끊을 것은 끊고 세울 것은 세우는 마음의 울타리, 십계명의 울타리를 돌리고 삽시다.

둘째 나쁜 밭 곧 돌밭이 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밭이지만 씨앗이 떨어져 썩어 나도 바람이 불고 햇볕이 쬘이면 곧 말라버리는 밭으로 흙이 조금 덮였으나 안에는 돌천지인 밭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돌밭이라고 합니까? 외식을 하면서 마음속에 회개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받으면서도 죄악의 습관을 끊으려 애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슴치는 회개운동이 없으면서 잘 믿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회개할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습관을 끊기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돌을 뽑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세째, 가시밭이 있습니다.

가시밭과 옥토의 땅은 꼭 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가시밭에는 사과나무 대신 가시가 자라고 곡식이 아니고 가라지가 자라는 땅이 가시밭입니다. 곡식보다 가라지를 먼저 키운 사람은 지식이 많고 기술이 좋으며 권세가 담당하고 건강하나 책임감보다 교만이 먼저 커버린 사람입니다. 아무리 옥토이지만 교만과 욕심을 키워 놓으면 책임감과 겸손이 사그라져 버립니다. 남보다 지식·권세가 많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는 충성심만 가지면 아무것 없어도 생명의 열매를 맺고 교만과 욕심이 먼저 생기면 가시밭이 되어 흉년이 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햇빛 속에서 숨쉬고 사는 인생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천국가서 면류관받을 수 있는 풍년을 누리기 위해 각자 맡겨진 책임에 충성하기 원하면 가시나무는 뿌리째 뽑아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밭은 어떤가 물어 봅시다. 모든 성도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밭을 살펴보고 가시나무를 뽑고 사과나무를 키웁시다. 이제는 외식 집어치우고 알찬 신자가 됩시다. 십계명의 울타리를 두르고 예수님 주신 은혜로 성령님의 은총 안에서 풍년의 열매를 맺는 금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1월의 행사

- 2일/제직회·남전도회임원회·산업전도회임원회·권
사회임원회·재정위원회
3~6일/교회부흥회
7~10일/단기수련회
9일/공동체리회·남전도회월례회·여전도회임원회·
권사회월례회·대학부 헌신예배
16일/여전도회월례회·재정위원회
17일/교육위원회
17~21일/고등부 동기수양회
18일/특별권찰회
19일/산업전도회 총회속회
23일/권찰회월례회·고등부 헌신예배·전도위원회·
건축위원회
24~27일/유치·초등부 겨울성경학교
30일/제 3회 선교의 주일·해외복음선교회 월례회·
해외복음선교회 헌신예배

월간 증현

1월호 차례

- <말씀> 영육이 아울러 종년을 맞이합니다
/김창인 목사..... 2
<권두언> 새 결심 새 실천/주간..... 4
<이달의 글> 참 자유인..... 5
<특별기획> 당회장에게서 듣는다..... 6
<해외선교> 그 현황과 문제점/오태용 집사..... 8
<순교사화③> 손양원 목사(상)/이정용 전도사..... 11
<신학해설> 현대신학의 동향과 우리의 살 길
/신성종 목사..... 12
<책소개> 찬송가해설(제 3권)/조선근 집사..... 14
<도서정보>..... 14
<1200자 칼럼> 신년수상/성주진..... 15
<찬송가해설> 내 갈길 멀고 밤은 길은네..... 15
<편집자에게 온 편지>..... 16
<구역운영회> 우리교회의 신경계통..... 17
<구역장노우트⑫> 신앙지도의 지침④
/백성룡 목사..... 18
<구역소식>..... 18
<뉴우스>..... 19
<기자석·편집후기·표지설명>..... 22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23
<기독교명시> 생명의 빵..... 24

◇ 방송전도 ◇ 김창인 목사 방송설교 : 아세아
방송(1570),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45분



권 두 언

새 결심 새 실천

국내외적으로 파란폭풍이 많았던 한 해의 문은 닫히고 새해의 문턱을 또 넘어섰다. 지나온 어느 해를 치고 다난한 일이 없던 때도 없었지만, 작년 한 해는 세계적으로 천재지변과 재난으로 인해 많은 희생과 손실의 해였다. 백만명을 앗아간 중국의 당산시를 비롯하여 터키·소련·이태리·필리핀·인도네시아·과테말라 등지에서는 지진으로 참상이 있었고 뉴우욕주의 강풍과 파키스탄의 홍수로 말미암아 300여만명이 집을 잃게도 되었었다. 또 유럽에서는 350년만에 처음으로 닥친 한발로 피해를 입는 등의 수난의 상처는 너무나 많았다.

국내적으로도 8·18 도끼만행사건으로 전쟁 촉발 위기와 동해안을 휩쓸고 간 태풍으로 어민의 슬픔을 자아내게 한 비극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대풍년(大豊年)의 해를 맞이하게 되어 온 국민의 입이 크게 벌어지기도 했다. 이 나라에 복을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 거들 길이 없는바이다. 이렇게 희(喜)와 비(非)가 엇갈리는 한 해이기도 했다.

어떻든지 희·비의 쌍곡선이 교차하는 76년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옛것을 되새기기에마는 너무 한가롭지 못하다. 앞으로 맞이해야 할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였다(고후 5:17). 그뿐만 아니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쫓아가노라”고 하였다(빌 3:13, 14). 이제는 새로이 찾아와준 소망의 새해를 위해 생각할 때가 된 것이다.

달이 바뀌거나 해가 넘어가면 사람은 으레 지금까지 살아온 일을 더듬어 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스스로 가지게 된다. 77년 새해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 각자들은 가슴마다 새로운 결의를 아로새겨 놓았을 것이다. “금년부터는 성경을 3장씩 읽는 생활을 한다든지, 새벽기도를 한다든지, 성수주일을 한다, 십일조생활을 한다, 근면한 생활을 한다, 가정에 충실하겠다, 못된 습관을 고친다, 술과 담배를 끊는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 등등의 솔한 각오를 가졌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새해 아침에 결심한 그 계획은 벌써 흐지부지 어디로엔가 사라지고 남은 것마저 산산조각이 나지나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결심을 얹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나 과연 해마다 연초에 다짐한 그 결심을 한 해 동안 제대로 실천할 수 있었던가 말이다. 365일종 단 며칠 동안만 실천하지 못하면서도 새해가 가까이오면 다시 버젓이 새롭고 거창스런 청사진을 내놓는다. 그리고 또 몇 날이 못 넘어가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만다. 이것은 자신을 기만하는 일이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속이는 상습적인 악행이 될 것이다. 실천할 수 없는 계획은 안 세우는 것만 못한 것이다. 금년에는 새 결심보다는 새 실천을 하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실천 없는 큰 계획보다는 작은 실천이 낫지 아니할까.

새 미국 대통령 카터씨는 도의세계건설(道義世界建設)을 모토로 앞날을 대망하고 있다.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세계 건설을 향해 모두가 기도와 성경연구와 전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줄 안다. 믿음의 세계 건설을 위해서는 성경 읽을 결심만 말고 읽는 사람이 되어지고, 기도할 결의만 갖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성수주일하는 사람으로, 십일조하는 생활로, 부지런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술·담배를 끊을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 끊는 것은 계획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결심의 사람이 아니라 결단(行動)의 실천하는 새해의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결심을 크게 하였든 작게 하였든 결의가 있든 없든 오직 우리에게 실천 그것뿐이다. <주간>

찬 과 욱 인

1900여년 전 인간의 생명법칙과는 다르게 한 사람이 태어났다. 이 사람은 가난하고 미천하게 자랐다. 그는 여러 곳으로 여행도 하지 않았다. 단 한 번 그가 살던 나라의 경계선을 넘었을 뿐이다. 그것도 그가 어린 시절, 망명하던 때의 일이다. 그는 부(富)도, 감화력(感化力)도 지니지 않았다. 그의 친척들은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았고 훈련을 받거나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도 않았다. 어렸을 때에는 임금을 놀라게 했고 소년 시절에는 박사들을 당황케 했다. 장성한 후에는 자연의 법칙을 지배했고 바다 위를 포장도로인양 걸었고 바다를 잠잠케 했다. 그는 약도 없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었고 그의 봉사에 대한 댓가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가 결코 책을 쓰지는 않았으나 각 나라의 도서관에서는 그에 관해 쓰여진 책을 다 보관할 수가 없었다. 그는 결코 작곡을 하지 않았으나 모든 작곡가들이 이룬 것 이상으로 주제를 풍부하게 했다. 그가 대학을 설립하지는 않았으나 모든 학교를 다 합쳐도 그의 앞에서 학생수가 많다고 자랑할 수가 없다. 그는 결코 군대를 규합하지 않았고 병사(兵士)를 소집하지도 않았고 총을 한 방도 쓰지 않았으나 어느 누구보다 지원병을 많이 가졌고 그의 명령 하에서는 총을 멘 많은 반역자들도 한 방의 총도 쓰지 못하고 굴복하고 말았다.

의술(醫術)을 실습해 보지도 않았으나 곳곳의 많은 의사들보다도 더 많은 상한 심령들을 고쳐 주었다. 매주일마다 상거래들이 중지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찬양을 돌리기 위해 예배하는 집회에 모인다. 과거에 그리이스와 로마에서 자랑스러운 정치가들의 이름이 많이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과학자들과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렸으나 이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살아 있으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의 십자가 사건과 이 시대 사람들과는 1900년이란 차이가 있지만 그는 아직도 살아 계신다. 헤롯이 그를 꺾을 수 없었고 무덤도 그를 붙잡아 놓을 수 없었다. 하나님으로 선포되었고, 천사들이 경배하였고, 성도들이 찬양하였고, 마귀마저 두려워한 그는 살아 계신 인격적 그리스도로서, 우리 주님과 구세주로서 하늘 영광의 최상에 서 계신다.

1977년도를 맞으며

당회장에서 듣는다

1977년을 맞은 우리교회는 이미 기공을 본 충현기도원 건립, 계속 이어져야 할 성전건축문제, 선교 및 교육 문제 등 단계적으로 이룩해야 될 일들이 교회 내외적으로 산적해 있다. 머지 않아 본교회 설립 25주년 또는 30주년을 향한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포부·희망에 대하여 본 월간충현 간사 오태웅 집사가 알아보았다.

<편집자>

오 : 교회설립 24주년이 되는 금년은 당회장 목사님의 60회 생신을 맞는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교회에서 할 일이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예배당 건축이 선행되어야 다른 사업들도 제대로 풀려나가기라 보는데, 그것이 현재 어떠한 형편에 있으며,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당회장 : 먼저, 교회설립 24주년도 되고 60회 생신도 되지만 금년은 나의 목회 4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예배당 건축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시(市)에서 아직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배당 건축은 열망하면서도 전체 교인들이 초창기 때처럼 예배당을 지어야겠다는 간절하고도 뜨거운 열정이 모자라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점이다. 지금 예정으로는 기도원이 7~8월경에 어느 정도 완공되면 곧 예배당 건축의 기초작업에 들어가려고 한다. 한 마디로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믿는다. 우리 예배당만 건축되면 기타 필요한 인쇄소·목공소 등 부대시설도 갖출 것을 구상중이다.

오 : 비록 교회는 비좁아도 우리교회의 12부 주일학교 교육은 한국에서 모범적이라는 평도 있는데, 목사님께서 보시는 견해는 어떠하며 또 바라고 싶으신 점은 무엇입니까?

당회장 :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은 첫째는 하늘나라의 합격자, 둘째는 당회의 천국 건설자를 키우는 것인데, 계속 정상적으로 잘 교육되고 있다고 본다. 현재 장소가 비좁다고 수에 등한히 하기가 쉬운데 먼저는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되 역시 질과 양을 겸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각부 주일학교 지도자는 일지를 써가면서 기록으로 남겨, 몇년 후에는 한국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모범 교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오 :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까지 16부 주일학교를 설치하고픈게 소원이라고 말씀하신바 계신데, 앞으로 어떤 종류의 주일학교를 구상하고 계십니까?

당회장 : 교육할 장소도 여의치 못한데 벌써부터 발표할 것은 못되지만, 약혼자·신혼부부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꼭 시작하고 싶다.

오 : 작년에 목사님께서 세계 선교 여행을 하고 오신 뒤부터 충현교회는 서울에서 한국, 나아가서는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 세계를 위해 일하는 교회로 지향하려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에서는 우리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충현교회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구상들을 하고 계십니까?

당회장 : 현재 우리 충현교회 교인이 세계에 안 나가 있는 곳이 없을 정도인데 일본·서독·미국·캐나다 등 어디를 가도 우리교회 출신 성도들이 두드러지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랑을 듣게 되었다. 이런 때마다 흐뭇하고 또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 책임이 무거워짐을 느끼기도 한다. 앞으로 충현교회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뭐라고 딱잘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세계로 퍼져 나간 충현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선교사의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다. 일단 모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할 도리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연락망을 조직해서 주보·월간충현·편지 등으로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긴 한데 잘 안되는 곳도 있다. 또 해외에 지교회와 자매교회를 많이 두고 싶은데, 우리와 신앙 노선이 같은 외국 교회와 유대관계를 맺어 우리 충현 식구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안심하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한다. 아울러 젊은 사람들을 많이 키워 세계 각곳에 보냈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 장학금을 대주겠으니 자격있는 사람을 보내만 달라는 요청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다.

오 : 그 말씀은 우리교회의 「천국 일꾼을 키우자」라는 표어와도 많이 관계되는 것 같은데, 뜻있는 학생들은 이 표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서도 뭐 이렇다 할 밝혀진게 없기 때문에 막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가 마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차제에 과연 천국 일꾼이 무엇이며 그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하시는지 장학생, 대학부 등과 관련지어 말씀해 주십시오.

당회장 : 천국일꾼이란 한마디로 자기 직장이나 학교 등 어디서나 천국을 건설하는 사람이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신학생도 키우고 일반 평신도도 키워야 하겠다. 각곳의 제일 좋은 신학교에 장학생을 보내 면학의 길



<새해의 포부를 이야기하는 당회장 김창인 목사>

을 더 주고 또 유망한 전도사를 세계에 전파하고 훌륭한 교회에 부교역자로 보내서 시야를 넓히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현재로서는 서독과 미국과 캐나다가 대상이 될 것 같다. 또 우리 부목사들을 해외에 보내내 부흥집회도 갖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국내에서든지 해외에서든지 총현교회에서 자란 사람은 단 교회 출신자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참 고마운 일이다. 세계 여러 곳에서 총현교회에 사람을 보내달라고 신청해도 아직은 마땅히 보낼 사람이 없는 실정에 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방법으로 각부 주일학교에 금년부터는 전임 교역자 1명, 부교역자 1명씩을 꼭 두려고 하는데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 장학생 문제도 적당한 사람만 있다면 더 늘리고 싶은데 본인이 자격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신학생 외에 일반 학생들도 직장 선교사로 키울 것이다. 현재 대학부에 상당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비록 학생수가 많지 않지만 교역자를 여럿 두는 이유는 학생들의 생활면까지도 관심을 갖고 키우기 위한 배려이다.

오: 작년에는 우리교회의 해외 선교지가 크게 확장되었는데 해외 선교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과 그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하리라고 보는 정책연구기구의 설치 등 발전적인 전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장: 내가 은퇴할 때까지 선교사 50명과 평신도 선교사 100명 정도 파송하려고 한다. 아프리카에도 해외선교 기관과 협조하여 한두 명 보낼 계획이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선교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예를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선교정책이나 행정 등은 전도위원회(외지분과)에서 관장하기로 되어 있다. 전담 실무자가 절실히 필요해서, 현재 신학교 졸업의 간사나 총무를 물색중이나 역시 인력난이다.

오: 교회가 커지다 보니, 성도의 교제(Koinonia) 문제가 자주 제기되는데, 어느 대교회에서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소그룹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며, 주일 오후에 평신도 성경 공부 등과 같은 방안은 생각할 수 없을지요. 사경회도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회장: 그것은 각 구역활동을 강화해서 자기 구역 성도들끼리 회노에락을 나누면 좋을 것이다. 교회 내에서 소그룹별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작용이 생기기 쉬우므로 찬성할 수 없다. 현재 우리 청년부 같은 곳은 초·중·고·대학 등 각가지의 학력과 직업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뭉쳐진, 가장 모범적인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줄 알고 있다.

평신도 성경공부는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주일 오후에 장소와 시간을 도저히 낼 수가 없어 이럴 도리가 없다는게 안타깝다.

오: 현대 생활이 복잡해져서 신앙의 생활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실질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취직시험을 치뤄야 할 것이냐와 같은 문제 말입니다. 신앙과 생활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무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없을런지요.

당회장: 물론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이 같을 수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교회에서 착실히 신앙 인격을 키워 사회를 리이드해 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세상 생활은 전쟁터인줄 알고 그리스도의 제림 때까지 싸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오: 끝으로, 저희 월간총현이 그동안 놀라운 성장을 하였다고 모든 성도들이 자랑 삼고 있는데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몇마디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장: 지금까지 여러 분들이 희생적인 많은 노력을 한 결과이겠는데, 이에 네가지 목적이 있다. ① 하나님께 영광 되고 ②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며 ③ 불신자들에게 전도의 길이 되고 ④ 후세에 유익을 준다. 이 네가지 목적을 늘 생각하고 정성만 다 해주면 되겠다.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

신성종 목사 사임

—고려신학교

신학부장으로 전임—

1974년 6월 미국에서 귀국하여 대학부 지도, 본 월간총현 주간, 교육연구위원회 위원장등의 주요직을 역임하며 총현교회에 헌신하여 온 신성종 목사가 고려신학교 신학부장 겸 학감의 중임을 맡게 됨에 따라 부득이 우리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 본교회 출신 신목사는 총회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 웨스트민스터신학을 거쳐 뱀틀대학교에서 「바울의 선교방법과 토착화문제」란 제목의 논문으로 철학박사(Ph. D.)학위를 받은 바 있다.

해외선교—그 현황과 전망

오 태 용 집사

<월간충현 간사·중동부 교사>

1977년의 새해가 밝았다. 우리나라가 70년대를 중진국의 도약기로 잡고 수출 100억불에 도전하고 있는 이 때, 세계를 복음화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교회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1971년이었는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충현교회는 복음수출에 있어 바야흐로 중진의 대열을 넘어서고 있다. 수많은 우리 충현의 성도들을 미국등 해외에 내보내 복음의 영토를 점차로 확장시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까운 일본을 비롯, 동쪽으로는 인도네시아와 홍콩에서 중동지역에까지 그리고 멀게는 유럽과 남미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씨앗을 파종해 역사하신 것이다. 이러한 능력과 축복을 주신 삼위 하나님께 높이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의 선교활동을 중간점검하고 명실공히 우리 충현교회가 복음을 수출하는 선교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외선교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및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I. 현 황

축적되어가는 교회의 힘은 자연스레 해외선교로 눈을 돌리게 하여 1968년에 해외복음선교회를 발기, 창립총회를 열고 이듬해에는 초전일 목사를 미주 선교사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잘 될 줄로만 알았던 해외선교는 선교사의 사임으로 벽두부터 난관에 봉착한 듯했으나 선교지를 인도네시아로 변경하고 서만수 목사를 선교사로 추대하여 1971년 9월 9일 자카르타로 떠나게 함으로써 역사적인 충현교회 해외선교의 막이 올리지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에 선교관 건축

이곳에서 서선교사는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를 설립하여 한인 기술자 등 교포들에게 전도하는 한편 정글의 나라 각지를 순회하며 전도집회 및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또 인도네시아어 성경을 발행해 배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선교관이어서 송금문제 등 제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아주 좋은 위치에 선교관 대지를 확보하고 3만여불(佛)을 들여 완공,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1976년 10월 25일에는 역사적인 인도네시아 한국선교관(2층) 개관식을 갖게 되었다.

1976년은 우리교회 최고의 해였다. 재일동포와 일본인을 위해 선교사까지 추대해 놓았으나 입국 불허로 일본 선교가 불가능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의사인 유병세 집사를 일본으로 전근시켜 1976년 4월 3일 평신

도선교사 제 1호로서 일본 북해도 주재 평신도선교사로 파송케 하였다.

일본에 평신도선교사 제 1호

유 평신도 선교사는 병원 근무를 하면서 동료 직원과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상으로 가득찬 거리에 나가 노방전도와 축호전도를 하며 소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한편 인력수출 붐을 타고 중동에 진출한 우리 교민들을 돌보면서 회교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는 이연호 목사를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선교사로 1976년 8월 6일에 파송하였다. 중동의 회교국가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철저한 폐쇄사회로 종교의 자유가 없는데다 기독교 진입은 국책으로 막고 있어서 한마디로 선교 불능의 상태였었다. 사실은 여기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기업체의 편의를 약속받고 선교하려 한 것인데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들로 인해 공적 예배활동이 제재를 당하게 되자 이선교사는 할수없이 공개적인 복음전도를 음성화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선교하기 힘든 아랍지역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나라에서 때를 기다리려고 하고 이선교사는 아랍어 공부를 하면서 인근 노동자와 사우디 주민들에게 이말을 해 주며 선교의 발판구축을 다져나갔다. 토착민들의 습속과 생활, 의식구조 등 현장 이해야말로 더없는 산 교육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여의치 않아 본부의 지시에 의해 9월 27일 인도네시아로 임시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공산권을 넘보는 홍콩선교

세번째로 교회는 9월 23일 홍콩만 목사를 홍콩 주재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세계의 문호인 홍콩은 선교 거점으로서 안정맞춤의 곳이다. 특히 우리의 열원인 대공산권 선교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데에 그 전략적 가치가 크기도 하다. 이곳에는 여러 교파의 성도들이 모이는 한인교회가 있는데 총목사는 이 교회의 담임교역자 겸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는게 여타 선교사와 또 색다른 점이다. 여기는 여건이 좋아 홍콩선교사 부임 이후 세계 선교 대회에 참석하고 귀국중이던 당회장(김창인 목사) 모시고 부흥회도 하고 교인심방도(40가정)하고 하여 교인수가 두어달 동안에 2배 이상 증가하는 부흥을 가져오고 있다고 전해진다.

의욕적인 남미선교

11월에는 젊은 사업가인 신동수 집사를 아르헨티나 주재 평신도선교사로 파송하였다. 본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던 신집사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교회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인근 교포들을 방문·전도하면서 청소년 그룹지도도 하고 있다.

복음은 유럽까지

이제 선교사 파송은 더 없는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유럽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12월 20일의 육호기 목사 서독 주재 선교사 파송이 그것이다. 너무 갑작스런 파송에 모두 어리둥절했지만 당회장의 성공적인 서독 순회전도 집회가 있는 후 마침 서독선교 비자 소지자가 나타나서 기회를 포착해 파송한 것이라 한다. 이제 겨우 짐을 꾸는 실정이나 급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는다.

평신도선교사가 되려면

이상에서 우리교회의 해외선교 현황을 연대순으로 둘러보았다. 그러던 작년에 2호까지 배출한 평신도선교사는 어떻게 선정해서 파송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선교의 사명에 불타는 평신도가 취업이나 이민·전근 등으로 인해 해외에 나가게 될 경우 본인이 당회에 청원을 해서 평신도선교사로서의 능력과 적합성 여부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인정 후엔 훈련을 받게 되는데 선교대학원에 위탁하든지 아니면 단기성경학교를 통해 선교의 기본 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아울러 선교지에서의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지선교에 임하게 된다. 이렇게 파송된 평신도선교사는 직장 여건에 따라 활동하게 되는데 매월 본부에 선교보고를 해야 하고 지시를 받아 움직이게 된다.

너희는 가라 그리고 보내라

끝으로 본부의 해외선교 지원실태를 보면 「너희는 가라 그리고 보내라」는 선교표어를 내걸고 1975년에 선교주일제를 제정, 해마다 1월 마지막 주일에 지키고 있다. 이 날엔 선교에 대한 범교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모든 집회의 설교를 선교에 관한 것으로 하고 선교회원 가입신청을 받는다. 이밖에 선교부흥회, 선교옹변대회도 개최해서 선교열을 고취시키기도 한다. 현재 선교회원은 약 900명 정도에 그친다. 또 매월 첫 주 월요일에 실시하는 해외이주자교육을 통해 평신도로서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II. 전 망

현재의 여섯 군데 선교지 중 작년에 파송된 선교지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간단히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중동지역

석유산출로 인한 물질적 부(富)만 풍성하지(그것도 일부 지배층에만) 정신적·종교적으로는 아직도 낮고 어두운 중동지역은 굉장한 선교의 가능성을 보이는 초현대와 원시가 공존하는데다 사회가 극히 폐쇄적이어서 무지하고 게으른 국민들. 이 모든 것은 생명력 없는 종교의 지배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무망하리라. 회

* 우리교회 전도활동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문제 제기와 아울러 보다 실효성 있는 전도활동을 위한 제언을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연재되었던 『교회 전도활동을 위한 기획연재』는 이번 호로 서 끝을 맺는다. <편집자>

교라는 국교의 벽을 뜯을 수 없어 「선교사 천수」라는 잠정적 조치를 취하긴 했어도 짧은 기간의 사우디아라비아 체류 중 국민들의 눈동자에서 영적인 갈망을 읽고 또 소리 없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4~5년 정도 때의 성숙을 기다려야 할 형편이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선교사 입국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우회적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을 느낀다. 회교권의 중심지인 카이로나 알렉산드리아 등지의 대학에 유학을 해서 아랍어도 공부하고 그들의 문화도 익히면서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빠른 길은 왕실과 인연을 맺는 것인데 그러한 길이 혹 예비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다. 중동선교를 결코 포기할 순 없지 않은가.

(2) 홍콩지역

홍콩의 선교적 가치는 그것이 세계적인 도시라는 점이다. 이 창구를 통해서 중공을 엿볼 수 있고 대공산권 선교의 문을 두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곳은 동남아시아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에 굶주린 천의 장막 속에 그리스도를 전하는(성경 배포 등) 진진기지 역할도 하면서 장래를 위한 선교의 발판을 구축해야 할 어려운 사명을 띠고 있다. 한인교회의 부흥도 소홀히할 수 없을 것이다.

(3) 유럽지역

수많은 우리나라 간호원들과 광부들이 취업해 있는 서독은 먼저 프랑크푸르트를 거점으로 해서 교민들과 서독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한편은 프랑스로 또 한편은 스칸디나비아쪽으로 전진해 들어감으로써 전 유럽에 복음을 심으려는게 우리의 비전이다. 이미 이 지역에 흥현교회의 이미지가 좋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육호기 선교사의 의욕적인 선교활동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III. 문제점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앞으로 10년 내에 선교사 50명 평신도선교사 100명 정도를 파송해야겠다는 포부를 밝히신바 있다. 또 아프리카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달로 확장되어갈 해외선교에 대하여 현재의 상태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을 것 같다. 그저 기회가 생기면 파송한다는 선(先)파송 후(後)수습책도 일리는 있으나 현대의 선교전략은 못되는 것 같다. 학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우선 우리교



<필자>

회의 해외선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선교전략의 빈곤

선교는 전쟁에, 선교사는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장수(將帥)에 비길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 선교본부에서 해야 할 일은 군대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선교 전략이 거의 없다는 게 아는 사람들의 솔직한 말일 것이다. 이 결정적인 열적 싸움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교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교사를 무턱대고 선전만 해서 파송하기보다는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잘 훈련시켜 내보내야 할 일이다. 또 선교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의적절하게 대처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부의 선교전략이 잘 체계화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안되는 이유는 선교전략을 담당할 인물이 부재한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교에 뜻이 있는 목사나 전도사 또는 신학생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 전반을 전담 연구케 하여 당회장을 보좌함으로써 선교전략의 미스를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선교사업을 수행해 나가야 되리라 본다. 그렇게 해서 인물을 키우는 것이 다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되어야 80년대를 바라보는 선교센터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2. 선교회원의 배가

선교사업은 교역자나 장로가 전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노년에서 유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다 동참해야 한다. 그럼에도 선교회원 실태를 보면 약 2천명 장년출석에 겨우 900여명(그 중에는 초·중·고 학생들이 꽤 많다)밖에 안된다는 점이다. 회비의 다과(外募)는 둘째 문제고, 선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체 교인들에게 침투되어서 총동원 선교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과연 내가 해외선교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실존적 물음에 적절한 응답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참여방법의 제시 없이 해외선교에 관심 가져달라는 것은 피곤한 일일 것이다. 화란에서는 교회에서 바자회를 열어 여성성도들이 정성들여 만든 물건을 남성성도들이 구매해 줌으로써 온 성도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풍토에서라면 선교사 지망생들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을 것이다.

3. 선교비 송금방법

아무리 용병스런 군대라 할지라도 군수지원이 없으면 죽기를 기다리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 지금 해외선

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돈이 있어도 정부의 외화 정책에 묶여 선교비의 제한송금밖에 못하는 실정에 있다. 그렇다고 인제까지 이르고 있을 수많은 없는 노릇이다. 현재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해외의 지교회와 자매교회가 본교회의 선교사업에 동참해서 적정지원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밖의 방법도 시급히 강구해 봐야 할 것이다.

4. 안식년 문제

현장에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시 휴식을 취하는 일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안식년은 ① 선교보고 ② 본부와 선교사간의 이해 증진 ③ 심신의 휴식 ④ 신앙의 재점검 및 교육 ⑤ 후배 양성 ⑥ 다음년의 활동계획 구상 등의 목적으로 외국서는 3년마다인데 반해 우리교회에서는 5년마다 1년 쉬게 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가 금년에 안식년을 가져야 하는데 여건이 그렇게 안되는 실정이다. 이제 앞으로는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에 대비해서 지급부터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리라 본다.

5. 선교사의 자질

선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질 문화권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은 전혀 그에게 달려 있다. 그것은 그가 어떠한 정신자세로 선교에 임하느냐에 좌우된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그가 피선교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선교의 열매는 맺고 진다. 만일 그가 확고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면 그것을 나누어 줄 것이요, 그가 희생적이고 자기 부인적이라면 회심자들은 그를 따라 십자가의 의미를 배울 것이며,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전해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일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주민들에게 맞춰나가는 자세이다. 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자세로 복음을 들고 그들의 문화와 생활 속에 흠뻑 들어들어 머리(Head)와 심장(Heart)과 손(Hand)의 3H가 일체될 때에만 선교사는 소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요나의 태도를 늘 경계할 일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교회의 해외선교에 관한 전반을 훑어보았다. 한편으로 흐뭇하면서도 한쪽 구석에 드리운 아쉬운 그늘이 우리의 표정을 어둡게 한다. 교역자·장로·권사·집사·일반 성도 등 우리 온 총회 교회 식구들이 한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이마를 맞대고 무릎을 맞대어 우리교회에 주신 이 거룩한 실업을 축복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겠다. (*)

사랑의 원자탄—손양원 목사(상)

이 정 응 전도사

(새신자부 부지도, 총신연구원 2년)

사랑의 사도 손양원 목사는 경남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685번지에서 손종일 장로와 어머니 김은수 집사의 장남으로 1902년 6월 3일에 출생하였다.

손양원 목사는 한국 교회의 사랑의 사도이며 사랑의 목사이다. 손목사의 일기가 안용준 목사 저술로 “사랑의 원자탄”이란 책으로 출판되었고 영국 미국에서도 번역되어 온 세계에 보급되고 있다.



(손양원 목사의 모습)

1. 어린 시절

이 아기가 세상에 나와서 첫 울음소리는 세상을 깜짝놀라게 할 사랑의 사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손목사는 어린 시절 교회 주일학교에 나가서 말뚝을 배웠다. 공부에 재주가 있고 또 배우겠다는 의욕이 강해서 가정은 빈곤하나 18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중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니 고학의 길에 나서게 된 것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원치 아니하게 아버지가 3·1운동에 참가하였다는 죄목으로 피학을 당하게 되었다.

그후 일본에서 큰 성령의 불길의 체험으로 생활과 신앙의 큰 변화를 받고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경남 성경학원에 입학하였다.

2. 목사가 되기까지

손목사는 간절한 기도의 생활과 성경연구에 집중, 학우들을 사랑하는 겸손한 태도가 항상 그에게 있었다. 손목사는 성경학원 이학년 때 그의 생의 반역자 정양순씨와 결혼하고 약 10년간 개척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전도하고 신학교에는 33세나 되어서 입학하였다. 동창생 가운데는 학자, 순교자가 많이 배출되었다. 목사가 신학교 재학중 일때는 평양 대동강변 능라도 교회 전도사로 시무하며 공부하였다.

목사가 신학교 졸업할 때에는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던 때요 졸업하니 신학교 문이 닫혀졌다.

3. 신사참배 반대와 목회생활

손목사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남 여수에 나병환자가 모인 애양원 교회에서 목회하는 짧은 종이 되었다. 그는 키가 작고 몸은 약하여 세상사람들은 볼품 없다고 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불의를 싫어하는 청렴한 강하고 담대하였으니 목사는 강단에서나 회의석에서 주의 뜻이 아닌 신사참배를 적극 반대하며 일본은 망한다고 주장하였다.

손목사는 애양원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일을 보며 병자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고 심방하고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몸도 어루만져 주기까지도 하였고 심지어는 병자들의 상처에 들어 있는 고름까지도 자기의 입으로 빨아 주고 조금도 더럽다는 표정이나 의면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런데도 손목사를 이유없이 싫어하는 환자들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목사는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올 때 선물을 사가지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주면서 위로하였다. 이렇게 손목사는 사랑으로 저들을 감동시키고 위로하여 사랑의 아버지가 된 것이다. 어떻게든 철저하게 신앙으로 지도하였는지 저들의 육안에는 절망이란 찾아 볼 수 없었고 소망과 확신으로 회례에

넘쳐 있었다.

4. 원수를 사랑한 손목사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사건이 일어났다. 이튿날 10월 20일에 드디어 반란군들은 열차를 타고 순천 시내로 물러 들었다. 바로 이때 동인군과 동신군이 반란군의 폭도 학생들에게 잔학 죽었다. 그 날짜는 10월 21일이다. 그들이 숨질 때 신앙을 살펴본다면, “야 이 자식아 이래도 예수 사상 못 뺄겠느냐? 지금이라도 예수 사상 뺏아 버리면 용서할 텐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동인군은 “너희들이 내 목을 뺏을지 언정 내 신앙은 뺏을 수 없다.” “야 너희들도 그런 악한 짓 그만 두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나는 이제 죽어도 천당에 간다는 너희들은 그 무서운 지옥 형벌을 어떻게 면하겠느냐?” 하니 이 소리를 들은 폭도들은 이를 갈며 주먹을 쥐고서 “쏘아라! 하나 둘 셋!” 하는 소리가 끝나자 말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까지 말하다가 총에 맞아 말을 못마치고 필멸위더니 쓰러져 숨졌다. 이 광경을 본 아우 동신이는 자자처럼 잡고있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형의 시체를 붙들고 울면서……

“형님! 형님! 형님! 형님은 이제 저 영광스런 천당으로 갔읍니다. 나도 형님 뒤를 따라 가겠읍니다.” 하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외치기를, “저 놈도 죽이자 하니 모두들 “그러자 그러자”했다. 이 때 동신이는 두 손을 십자가처럼 옆으로 벌리고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자 동신이는 그의 형 동인이 곁에 쓰러졌다.

(다음 호에 계속)

현대 보수신학의 동향과 우리의 살 길



신 성 중 목사

<철학박사·고신 교수>

지금은 사상의 홍수시대이다. 더구나 이 세계가 일일권 내로 들어와 사상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사람들은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다. 여기엔 신문, 잡지, 라디오, TV등 매스컴의 영향도 크다. 이런 혼돈 속에서 과연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 그 좌표를 찾아서 우리의 가야 할 진로를 발견해 보자는데 본 논문의 의미가 있다.

1. 자유주의의 특징과 그 유형

자유주의를 알지 못하고는 보수주의를 알 수 없다. 자유주의는 구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로 구분된다. 구자유주의란 칸트(Kant)의 철학에 기초를 두고 시작되었다. 칸트는 말하기를 “인간은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이론적 지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의 창조물에 대한 관계는 신앙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인 것은 학문적 체계를 구성 못함으로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여기서부터 슈라이엘마헬(Schliermacher)의 구자유주의 신학이 시작되었고, 1919년 칼 바르트(Karl Barth)의 로마서 주석과 함께 신정통주의로 불리는 신자유주의가 탄생된 것이다.

그러면 구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요컨대 구자유주의는 칸트 철학의 판넨론에 근거한 합리주의적 신학을 전개하였고 신자유주의는 쾰케골의 실존주의에 근거한 비합리주의적 신학을 전개한 것이 다를 뿐이다.

그러면 자유주의의 전제(Presupposition)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성불가침한 것은 없다」는 정신에 근거하고 있다. 코넬(Kenneth Cauthen)은 자유주의의 3대요소에서 다음 세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① 연속의 원리(The Principle of Continuity);

자연과 초자연의 구별을 없애고 신과 인간, 계시와 이성 사이에 연속이 있다고 주장한다.

② 자율의 원리(The Principle of Autonomy);

자율이란 종교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과 종교적 체험을 표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란 말과 같은 뜻이다.

③ 역본설의 원리(The Principle of Dynamism);

모든 우주현상은 자연력의 작용에 기인한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즉 세상과 인간은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성경의 절대무오 같은 절대 진리란 없고 상대적 진리만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주의란 구·신 두 자유주의를 다 포함해서 자연주의(Naturalism)라고 할 수 있다. 쉽

게 말해 그들은 초자연주의(Supernaturalism)를 부정한다.

그러면 이제 이 자연주의에 대해서 일어난 보수주의에는 어떤 갈래길이 있는가? 크게 말해 우측에는 신근본주의(Neo-Fundamentalism)와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가 있고 좌측에는 신복음주의(Neo-Evangelicalism)와 신비주의(Mysticism)가 있다. 이제 네 경향을 간단히 살펴보자.

2. 보수주의의 네 경향

① 신근본주의(Neo-Fundamentalism)

신근본주의를 알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근본주의 신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래 근본주의는 현대주의 신학에 대항하기 위하여 1910-12에 일어난 하나의 저항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1919년 5월 필라델피아에서 세계대회가 열림으로써 조직되었다. 근본주의 신학의 사상은 The Fundamentals: A Testimony to the Truth (12권)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된 90개의 논문중 29개가 성경의 권위문제를 취급했고 31개가 세대주의자의 논문이었다.

그런데 근본주의란 별명이 붙게 된 것은 9개의 근본원리를 채택한데서 비롯된다. 그것을 간단히 지적하면 ㉑ 성경의 축자영감론과 무오류성 ㉒ 삼위일체 교리 ㉓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 ㉔ 인간의 창조와 타락 ㉕ 대속적 속죄 ㉖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과 승천 ㉗ 신자의 중생 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㉙ 부활과 마지막 심판 등이다.

근본주의 신학의 사상적 지도자로는 윌리엄, 제임스 파커 등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것은 1930년대 이후 신근본주의가 일어나면서부터이다. 이 신근본주의의 대표는 칼 맥킨타이어인데 그 특징으로서 ㉑ 반문화적, 반지성적 태도 ㉒ 분파적 완전론 ㉓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들 수 있다. 후에 이 태도에 대항하고 나온 것이 신복음주의이다. 그리고 신근본주의의 폐해적 분리적 태도로 인해 근본주의자들은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아시아에서는 보수주의 유럽에서는 복음주의란 명칭을 사용했으나 실은 신근본주의로서의 오해를 막기 위한 근본주의의 새 이름에 불과했다.

②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

본래 세대주의는 19세기 영국과 애란에서 일어난 성경해석 운동이다. 창시자는 다아비이며 조직화된 것은 존 넬슨(1800-1882)의 The Plymouth Brethren 조직 이후부터이다. 이 세대주의가 널리 보급된 것은 무디의 성경학원(Bible Institute)과 특별히 스코필드 참고

성경(Scofield Reference Bible), 그리고 샤퍼(L.S. Chafer)의 조직신학(8권)에 의해서 알려졌다.

성경역사를 스코필드는 8세대로 나누었으나 대부분은 7세대로 나누어 설명하는게 보통이다. 이들에 의하면 ① 부리의 세대(창 1:26-2:23)-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구원을 받음. ② 양식의 세대(창 3-7장)-선행에 의해 구원을 받음. ③ 인간 행정의 세대(창 8:1-11:9)-하나님을 대신한 정치를 통하여 구원을 받음. ④ 약속의 세대(창 11:10-15:21)-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머무름으로 구원을 받음. ⑤ 율법의 세대(시나산에서 갈보리까지)-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음. ⑥ 은혜의 세대(오순절부터 재림때까지)-믿음으로 구원을 받음. ⑦ 천년왕국의 세대-아들에게 순종하고 경배함으로 구원을 받음.

그러면 세대주의 신학의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성경의 시대를 일곱으로 나누고 그 때마다 구원의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성경의 통일성을 무시했다(엡 2:8).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순전히 미래적인 것으로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어 지금도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임하게 되는 영적 면을 무시했다(마 12:28; 눅 17:21). 세째로 문자적 해석만을 강조한 나머지 성경에 나타난 영적 해석을 망각했다. 예를 들어 암 9:11-12는 행 15:15-20에서 영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네째로 게벨라인(Frank E. Gaebelein)이 지적한 대로 십계명은 율법의 세대에 주어진 것이므로 은혜의 세대에 사는 우리와 관계가 없고 또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보훈(5~7장)은 종말론적 메시야 왕국의 윤리이므로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물론 최근에 와서 웅거(M.F. Unger)에 의해 많이 교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대주의 윤리관은 큰 문제를 던져준다.

이상에서 우리는 극우파의 두 경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제 극좌파인 신복음주의와 신비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③ 신복음주의(Neo-Evangelicalism)

신복음주의란 1940년대 이후 복음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운동으로서 신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분위기(mood)로 보는게 옳다. 왜냐하면 신복음주의는 아직 형성되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경계가 어느 정도 드러난 이상 그것을 여기서 지적하려고 한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1948년 풀러(Fuller)신학교의 설립, 둘째는 빌리 그레함(Billy Graham)의 초교파적 복음전도 세대는 *Christian Today Eternity* 잡지의 발간이다. 이들의 특징은 ① 자유주의와의 신학적 대화를 모색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고 있고 ② 성경적 보편교회론(Ecumenicity)을 내세운 나머지 실제로는 자유주의 교회와 손을 잡고 있을뿐 아니라 W.C.C.에 이용되고 있고 ③ 복음주의의 협동이란 미명하에 자유주의와의 협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위험성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성경론으로서 현대과학과의 관계를 강조한 나머지 성경의 무오류성을 포기하고 있으며 두번째는 포괄주의를 내건 나머지 교회의 순수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W.C.C. 기수였던 마렛이 원장으로, 오병세 박사가

교수로 있는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④ 신비주의(Mysticism)

신비주의는 언제나 보수주의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그 뿌리를 캐고 보면 바로 자유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차이가 있다면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에서 그 척도를 두고 있으며 신비주의는 인간의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자는 인간의 지(知)에, 후자는 인간의 정(情)에 근거한다. 따라서 신학의 원천(source)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음으로써 인본주의 신학을 탄생시킨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전 1:21)고 선언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비주의는 신플라톤 철학에서 그 사상적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이 독일 신학에 수입된 후 사상적 체계를 세우게 되었고 자유주의 신학과 함께 신본주의 신학을 잠식하려고 한다. 물론 국내의 신비주의 운동이 독일 신학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증거는 희박하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음은 부인할 길이 없다.

이 신비주의는 초대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 경향을 띤다. 첫째는 영지주의(Gnosticism) 경향이다. 영지주의는 이 원론적 혼합주의가 그 특징인데 이런 사상이 소위 보수주의 교회와 신흥종교에 공통적으로 범람하고 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번째 신비주의는 Montanism으로서 그 특징은 성령운동이다. 오순절의 사도행전적 성령운동은 복음의 수출국인 한국에서 꼭 일어나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마술사 시몬 같은 행위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극좌파의 경향은 바울이 고전 1:22에서 지적한 대로 서로 다른 것 같으면서도 그 뿌리가 같은 지혜와 표적을 구하는 사상이다.

3. 우리의 생로(生路)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어디인가? 그것은 고전 1:23-25의 말씀 속에 제시되어 있다. 즉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신학적으로 무엇인가? 결코 보수주의가 아니다. 보수주의에도 여러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수주의란 말은 부정확한 표현이다. 그렇다고 그냥 개혁주의 노선을 따라갈 수도 없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안에도 자유주의적 경향과 보수적 경향을 띤 개혁주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향은 보수적 개혁주의이어야 한다.

그러면 보수적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의 절대주권주의이다. 로마서 11:36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하며 그에게서 시작하여 그에게서 끝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주의이다. 두번째로 보수적 개혁주의란 성경주의이다. 인간의 지혜나 경험보다 성경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주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사조에 움직이지 말고 박윤선 박사가 쌓아놓은 이 보수적 개혁주의 기치 아래 전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이다. (*)

도서실은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교회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 그밖에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책명/저자(원자)/출판사).

- A. 문헌학
 - 세계대백과사전/대백과 사전편찬위·태극출판사
- B. 언어학·문학
 - 뉴월드 대사전/시사영어사 편집부/시사영어사
- C. 성경전서
 - The Holy Bible/King James Version
- D. 구약성서
 - 성경주석/박윤선/영음사
- E. 경외서·유대문학
 - 성서주해전집/우제무라간조/성지서
- F. 신약성서
 - 신약성서 대강해/김용조/성지서
- G. 변증론·협증론
 - 오직 예수/프란시스웨퍼/생명의 말씀사
- H. 철학
 - 역사와 민족/함석헌/제일출판사
- I. 조직신학
 - 기독교의 교리와 생활/김성진/칼빈사
- J. 교리사
 - 기독교 교리사/니이브·서업동/대한기독교서회
- K. 초대기독교문학
 - 역사의 연구/아놀드토인비/동서문화원
- L. 역사(일반적)
 - 인물중심교회사/모이어/대한기독교서회
- M. 역사(시대별)
 - 세계전쟁사/편집부/신한출판사
- N. 한국역사
 - 한국개신교사/백낙준/연대출판부
- O. 이교도종교
 - 이단의 정제/김의환/세종문화사
- P. 선교와 전도학
 - 이단종파비판/박영관/예수교문서선교회
- Q. 기독교의 세계선교/생명의 말씀사
 - 기독교윤리
- R. 공산주의와 예수가정/리즈/경정사
 - 신한 청지기/딜라드/침례회출판사
- S. 교회정치와 예배
 - 교회성장학/백가브란/보이스사
- T. 설교학·목회학
 - 진정한 부흥/찰스·피니/생명의 말씀사
- U. 기독교교육
 - 한국기독교 교육사/대한기독교교육협회
- V. 종교음악
 - 음악감상법/이성삼
- W. 사회학
 - 빛의 자녀와 어두움의 자녀/니이브/기독교서회
- X. 일반문학
 - 천로역정/존 번연

>독서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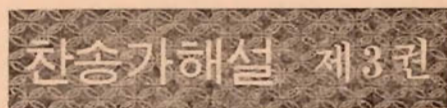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
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
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
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
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
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 생.....
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 적어.....
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
워 가자는 의도에서 금년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 중현」편집실

★ 추천하고 싶은 책 ★

김 경 선 지음



신당에 출판사 발행
4·6판 714면 3,000원

찬송가의 탄생 뒤에 숨은 사화(史話)들을 소개함으로써 작시·작곡가들의 신앙적 체험에 접근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찬송가를 이해하며 부를 때에 더욱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간 저자 김경선 씨에 의해 찬송가 해설 제1권과 제2권이 발행되어 전찬리에 판매되었다는 기독교 출판가의 소식이다.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무의미하게 불렀던 찬송가에 대한 새로운 면모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이와 함께 새로운 감동과 애착을 갖게 된다. 찬송가 작시·작곡자들은 모두가 신앙이 목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찬송가를 지은 때의 이야기는 그대로 우리에게 훌륭한 신앙간증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출간된 제3권에는 「하루 가는 밝은 길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할렐루야」 등 찬송가에 대한 깊은 배경 이야기가 취급되었고, 말팔랑이가 쓴 찬송과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설 등이 잘 소개되어 흥미있게 읽을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우리교회 당회장 김창원 목사를 비롯하여 임택진 목사·조종남 박사가 추천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 성경 못지않게 찬송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활이 찬송가와 밀착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찬송가해설은 더욱 절실한 공감을 자아내게 되는 것 인지도 모른다.

* 조순근 집사(월간중현 편집위원)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Lead, Kindly Light!)
(세 355; 개 331; 합 355)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 하소서

별빛과 같은 작은 일에 감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영혼의 어두움은 해갈을 얻고 넓은 안식에 거하게 된다.

이 찬송의 시를 쓴 헨리 뉴먼(Henry Newman) 목사는 영국교회의 목사로서 있으면서 당시 종교적인 혼란과 신앙의 빈민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휴양을 겸해 로마가톨릭 지도자와 만나 영적인 문제와 교회선택 문제 등 신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태리를 방문했다. 이태리에 가서도 병상에 누워 고생하다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적당한 선전이 없어 마르세이유로 오렌지를 운송하는 상선을 이용하기도 했다.

법선이 지중해 한가운데 이르자 마침 그 지역의 무봉현상으로 배가 뜨거운 태양열 아래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 병약한 목사가 안절부절하며 진정하지 못함을 보고 곁에 있던 친구는 “아마 하나님이 바다를 휘죽은듯 고요하게 하시는 자네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함인지도 몰라”라고 하였으나 아랑곳 없었다.

답답해진 목사는 태양열에 오렌지가 망가진다고 이리저리 옮기는 작업을 시키고 있는 선장에게 배가 언제야 가게 되는가 물었다. 선장은 “젊은이, 우리는 한 걸음씩 한 번에 한 걸음씩 바람을 기다리는 것을 배워왔소.”라고 침착히 얘기하자 의아한 듯 “한 걸음씩이라니? 난 뛰어야겠는데, 여보 바람 좀 불려일으키쇼”라고 말하자, 여전히 이렇게 말 할 뿐이었다. “하나님께 도전할만큼 내가 자랑스런 사람인가요? 내게 유익하게 하기위해 바람을 일으켜 달란단 말이요? 내 길은 내가 택하지 못하는 것이요. 적당한 때에 이르면 배가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가 어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지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 절대순종한 깊은 뜻이 담긴 선장의 말이었다.

다시 끈끈한 밤이 왔다. 선장은 계속 갑판 위를 서성이는 목사를 보고 낮에는 해라야하지만 다시 빛나는 별빛으로 오늘밤이라도 가고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선장이 돌아간 후 목사는 작은 별빛의 경이로움에 취해 “저 별! 저 별! 난 밝은 태양이 인도해 주길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한 별을 보내주시다니? 내 전생애에 그의 계획을 나타내시기 위해 밝은 빛을 보내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한 번에 한걸음씩 날 인도하시기 위해 저 별빛을 보내주셨구나!”

그 순간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교훈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은 뉴먼목사는 “하나님이 왜 날 여기 보내셨는지 알았소. 날 교육시키기 위함이었소. 난 참 눈먼 사람이었구려……”하며 의심에서 믿음으로, 미혹으로부터 확신으로의 영혼의 순례를 조용히 불렀고.

1700자 감상

신년수상(新年隨想)

성 주 진

1977년의 새아침이 밝았다. 온 누리에 새 빛은 비치고 그 빛 따라 우리의 생활도 환하게 밝아지며 빛 가운데서 내 모든 것이 부끄럼없이 드러나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하는 한 해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새해가 소망의 구름을 타고 왔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묵은 꿈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새롭게 된 꿈을 따라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힘쓰고 애써 이루며 주님께서 기꺼이 나 자신을 사 용하시는 한 해이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신자의 진실된 계획은 결국 기도를 체계화한 것 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늘의 뜻이 이뤄지기를 기도하는 것같이 계획은 우리가 세우고 노력할지라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히 서기를 구하기 때문이다. 또 신자는 개인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등에 있어 주께 구하는 것을 계획하게 되고 계획한 것은 기도제목으로 삼는 까닭이다.

계획에 따르는 실천은 단순한 이생에서 보상을 바라거나 체념적인 의무감에서가 아닌 주께서 불러 주신 소명(召命)의 자리에서 흘리는 땀을 필요로 한다. 실천은 마치 믿음과 같아서 구하고 계획한 것을 현실 속에서 구현(具現)시키는 도구라고 생각해 본다. 행할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면 손으로 수고할 줄 모르는 실행이란 아무런 계획의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것이다.

세계선교를 향한 우리교회의 비전(vision)이 해가 갈수록 새롭게 되고 깊어지며, 구체화되고 있다. 기독교 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열망과 함께 예배당 건축과 교육관설립의 긴박한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전도하는 일, 사랑으로 봉사하는 일, 권면하는 일, 이 모든 일도 쉬어야 할 까닭이 없다.

이것들 중에 지난 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이루어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몇 가지 있었다. 교회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본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일들을 이루지 못한것은 기도로 점철(點綴)된 계획에 따라 주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혜와 능력을 구한다. 새해에는 소망의 구름이 은혜의 이룬 비와 축복의 늦은 비를 내리게 하고, 땅에서도 힘써 씨뿌리고 땅을 경작함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독수리가 나래지며 비상(飛翔)할 같은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해 본다.

#

우리 교회의 신경계통

-1955년 16개 구역으로 구역권찰회가 조직된 이래 우리 교회의 신경 계통의 역할을.....□
 □.....담당, 교우들의 실정을 신속히 파악하여 보고·처리할 뿐만 아니라 성도간 교제의.....□
 □.....매개체가 되어 있는 구역권찰회는 교회가 숫적 양적으로 발전할수록 그 중요성을.....□
 □.....더하여 가고 있다. 4개 구획에서 5개 구획으로 증가된 금년도 구역운영요강은 대.....□
 □.....략 아래와 같다.□

1. 지구 담당 교역자

지구별	전반기 (1월~6월)		후반기 (7월~12월)	
	목사	전도사	목사	전도사
제 1 지구	김 재 창	김 재 일	정 기 성	이 두 란
제 2 지구	백 성 통	구 명 신	김 재 창	김 재 일
제 3 지구	김 중 택	강 봉 선	백 성 통	구 명 신
제 4 지구	정 상 우	최 순 복	김 중 택	강 봉 선
제 5 지구	정 기 성	이 두 란	정 상 우	최 순 복

- ④ 잠 실(4) ⑤ 청 담 ⑥ 삼 성
 ⑦ 강 남 ⑧ 논 현 ⑨ 화 양
 ⑩ 성 수 ⑪ 보 광 ⑫ 한 남
 ⑬ 옥 수 ⑭ 금 호 ⑮ 청 구
 ⑯ 약 수 ⑰ 장 충(2) ⑱ 목 정

제 4 지구

- ① 신 길 ② 신 립 ③ 사 당
 ④ 봉 천 ⑤ 대 방 ⑥ 상 도
 ⑦ 흑 석 ⑧ 여의도 ⑨ 세 강
 ⑩ 마 포 ⑪ 청 파 ⑫ 용 산
 ⑬ 후 암 ⑭ 회 현 ⑮ 필 동(1)
 ⑯ 필 동(2) ⑰ 인 현(1) ⑱ 인 현(2)
 ⑲ 화 원

2. 교인현황

1977. 1. 19. 현재

	세례교인	유아세례	학 습	원 입	계
남	1,276	273	230	486	2,265
여	2,369	211	333	562	3,475
계	3,645	484	563	1,048	5,740

* 총세대수 2,475세대
 총교인수 5,740명

제 5 지구

- ① 개 봉 ② 화 곡 ③ 문 태
 ④ 신 촌 ⑤ 서 교 ⑥ 가 좌
 ⑦ 응 암 ⑧ 역 촌 ⑨ 갈 현
 ⑩ 불 광 ⑪ 흥 계 ⑫ 서대문
 ⑬ 효 자 ⑭ 종 로 ⑮ 명 물
 ⑯ 초동 ⑰ 을지 ⑱ 중부 ⑲ 충무로

3. 지구별 구역분포

제 1 지구

- ① 도 봉 ② 상 계 ③ 창 동
 ④ 수유리 ⑤ 우 이 ⑥ 삼 양(1)
 ⑦ 삼 양(2) ⑧ 장 위 ⑨ 중 암
 ⑩ 월 곡 ⑪ 정 능 ⑫ 미아리
 ⑬ 돈 암 ⑭ 성 복 ⑮ 삼 신
 ⑯ 청량리 ⑰ 숭 인 ⑱ 창 신
 ⑲ 동대문 ⑳ 동 숭 ㉑ 광 회

제 2 지구

- ① 천 호 ② 구 의 ③ 군 자
 ④ 중 곡 ⑤ 태 능 ⑥ 면 목
 ⑦ 답십리 ⑧ 휘 경 ⑨ 마 장
 ⑩ 왕십리 ⑪ 흥 인(1) ⑫ 흥 인(2)
 ⑬ 신 당 ⑭ 장 충(1) ⑮ 쌍 립

제 3 지구

- ① 성 남 ② 잠 실(1) ③ 잠 실(2)

4. 구역협력 기구(조)편성

(1) 구역간 협조 혹은 협력하여 수행하여야 할 일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몇개의 이웃 구역끼리 합하여 지구별로 조를 편성한다.

(2) 조장은 내 조의 각구역장과 협의하여 구역원을 동원하는 일과 그때마다 있어지는 모든 일들을 관장한다.

(3) 경조간 특히 초상의 경우 구역원 동원은 가급적 해당 구역원은 전원이 동원되도록 할 것이며 기타 구역에서는 최소한 권찰들은 참여함이 좋다.

5. 구역원 파악 및 구역파견 시무규정

(1) 등록 혹은 이동에 따른 구역원 증감에 관한 파악은 해 구역위 주소지의 구역에서만 파악할 것이며 점포나 사무실 기타 근무처의 가까운 구역에서 필요에 따라 심방은 할 수 있으나 통계업무가 될 수는 없다.

(2) 위치상 구역소재가 애매하거나 이웃 구역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지구 담당 교역자의 지시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구역 소식

축하합니다(12월 중 결혼)

- 박해련/박상운, 김정례집사 딸—6일 영빈관
- 한진칠/김옥선집사 아들—8일 Y.W.C.A. 강당
- 김금숙/김치일집사, 진영순권찰 딸—8일, 염천교회당
- 문인모·백원선/청년부회원—16일, 충현교회당
- 주선녀/주원홍씨 딸—27 '충현교회당
- 김중식·문현주/김두영목사 아들, 문익상씨 딸—28일, 기독교대학관

알림

- 구역별 특별기도회—구역별 권찰회후 2월중으로 구역장이 주관하여 구역별 특별 기도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 구역별 권찰회—2월 12일까지 담당장로가 소집하여 모이시기 바랍니다.
- 구역카드 및 각종서류환비—각 구역장은 빠른 시일내에 구역에 속하는 모든 카드와 각종 서류를 정리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심방협력/각 구역은 1~2월중에 실시하는 노인심방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 지난 한해도 은혜가운데 지켜 주신 하나님께 금년에도 평강을 주시사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 인도네시아의 서만수선교사님 내외분과 현재 그곳에 합류중인 이연호 선교사님에게 새로운 좋은 선교지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 홍종만 목사님은 사모님과 세 자녀를 동반하시고 지난 9월 23일 선교지인 홍콩을 향하여 출발하셨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가진 홍종은 누구나 마음대로 드나드는 혼잡한 국제도시로 더 많은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시니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 12월 20일 육호기목사님이 서독으로 파송되었습니다. 하루속히 그곳에서 안정하여 복음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한 아직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목사님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 외과의사로 일본 북해도에 가서서 평신도선교사로 일하시는 유병세 집사님과 사업차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 평신도선교사로 일하시는 신동수 집사님이 선교일무를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구역장 노트 12

신앙지도의 지침(4)

백성통목사

예배란 뜻은 ① 일드려 절한다(대하29; 30), ② 십진다(렘 44; 3, 눅 2; 37), ③ 봉사한다(롬 15; 27) ④ 무릎꿇고 일드려 복종한다(마 2; 2, 11)등으로 말할 수 있다. 이 모두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복종과 경의심에서 나온 행동들이다.

이 같은 예배행위를 구체적으로 말할 때 예배는 ① 하나님의 계시(성경)에 기초하여 ②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③ 교회의 공동적인 행위로서 ④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가 된다. 이 믿음의 행위로서 예배에는 몇가지 요소가 있는데 ① 말씀(성경봉독) ② 기도 ③ 봉헌 ④ 찬송이다. 이런 형식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가짐이다. ① 감사와 ② 정성과 ③ 헌신과 ④ 복종심 없이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성례에 참여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적기에 신앙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일(믿기 시작하여 6개월 후 학습을 받고 6개월 후 세례를 받는 일)을 지도해야 한다. 세례 혹은 입교문답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며 이 때부터 온전한 교회의 경의원이 된다.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회원이지만 좁은 뜻에서는 개 교회의 신앙고백과 신조와 조직과 제도적인 여러 규범에 동의·승복한 신자라야만 한다.

(3)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서로 같은 신앙고백 위에서 무례히 행치 않을 것과 사랑으로 서로 봉사함으로써 덕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교제(고전 1; 9)를 시발로 한 성령과 복음 안에 교제다(빌 2; 1, 1; 5). 옛날 초대교회부터 성례전과 성도의 교제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교회가 건전하게 자라가고 부흥하며 발전하려면 원만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함도 여기에 있다.

(4) 봉헌하는 일에 힘쓸 것: 봉헌은 곧 헌신하는 사람의 신앙표현이다(부분적인 봉헌이지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대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간·지식·지혜·기능·물질·건강 등을 하나님 요구에 따라(신 10; 12) 합당하게 드려야 한다.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모두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결국 하나님의 필요(영광)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았던 청지기로서 정직하게 설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신 10; 13)했으니 헌납은 즐거운 일이며 감사와 정성과 정직이 있을 따름이다.

1977년 교회 각기관 임역원 확정발표

—당회를 비롯한 모두 19개 기관—

◇...1977년도 우리교회 중요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진이 지난해 연말로서 확정 발표되었다...◇
 ◇...당회를 비롯한 모두 19개 기관을 1976년도와 비교해 볼 때 1976년 7월에 발족된 산업...◇
 ◇...전도회와 주일학교 산업전도교육부가 추가되었다. 또한 이들 모두 19개 기관을 교회...◇
 ◇...행정, 예배, 전문위원회, 교회사업, 전도단체, 봉사단체등 각 기관의 성격과 특수성에...◇
 ◇...비추어 서일(배열)순서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 또한 새로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각 기관의 기관장 및 주요 임원진은 아래와 같다. ...◇

1. 당 회

회 장 : 김창인
 서 기 : 송순일 부서기 : 이태규
 당회원 : 김기정 김종석 김창배
 김한홍 박창수 신계택
 오승물 우성원 위영환
 윤두한 윤용규 윤종성
 윤종순 이웅선 이창준
 임광식 전희문 정석태
 조현명 최석주 최성림
 한명옥 한경일 홍중섭
 황기성 황창룡

2. 제직회

회 장 : 김창인
 서 기 : 강순용 부서기 : 김은호
 회 계 : 최성림

3. 구역관할회

회 장 : 백성룡
 서 기 : 신영대

4. 성가부

부 장 : 임광식
 제일성가대장 : 지금산
 제이성가대장 : 이병학
 여성성가대장 : 박옥식

5. 교육위원회

회 장 : 정상우
 서 기 : 신계택 부서기 : 정석태
 회 계 : 이웅선 부회계 : 홍중섭
 위 원 : 김재창 정기성 정관일
 김종석 김창배 김한홍
 박창수 우성원 윤용규
 이창준 조현명 한경일
 황기성 김태현 이승근
 김정일 서동석 오태용
 이병학 정은표 조선근
 차신득

9. 전도위원회

위원장 : 최석주
 지 도 : 정기성
 서 기 : 서동석
 회 계 : 임태주
 기획분과 : 윤종순 김진채 김영휘

외지분과 : 위영환 김창배 김의철
 내지분과 : 김기정 김봉재 김종택
 특수분과 : 김종석 김수성
 총동원분과 : 윤용규 신영대
 윤형철

7. 재정위원회

위원장 : 윤종성
 서 기 : 오정현
 위 원 : 이웅선 한경일 김광삼
 우기전 정봉조 문옥순
 김성숙

8. 건축위원회

위원장 : 김기정
 서 기 : 노광현
 회 계 : 이병학
 위 원 : 우성원 위영환 임광식
 최석주 한경일 이창업
 심인경 안윤진 정선화
 오희명

9. 동산관리위원회

위원장 : 한명옥
 서 기 : 박창수
 회 계 : 김창배
 위 원 : 김기정 송순일 우성원
 위영환 윤두한 윤종성
 이창업 나화봉 정선화
 유순녀

10. 인사위원회

위원장 : 김창인
 위 원 : 김한홍 송순일 신계택
 위영환 이웅선 임광식
 최석주

11. 장학위원회

위원장 : 김창인
 위 원 : 김기정 김종석 송순일
 신계택 윤용규 윤종순
 최석주 한명옥

12. 성경학원

원 장 : 김창인
 원 감 : 신계택
 이 사 : 김기정 위영환 임광식
 조현명 임현복 정봉조

감 사 : 윤종순 최석주

13. 총현동산(재단법인)

이사장 : 김창인
 전무이사 : 한명옥
 이 사 : 우성원 위영환 윤종순
 감 사 : 김기정 조현명

14. 월간총현

발행인 : 김창인
 편집인(편집위원장) : 송순일
 주 간 : 정관일
 편집국장 : 조선근
 편집위원 : 정상우 조현명 이두관
 김차생 윤형철 이정용
 손명순

15. 해외복음선교회

회 장 : 위영환 부회장 : 최석주
 서 기 : 한경일 부서기 : 신계택
 회 계 : 김성택 부회계 : 신현상
 실행위원 : 김기정 이창준 임광식
 한명옥 심인경 이창업
 김동삼 김봉재 박순옥
 안윤진 여옥기 유순녀
 이영주 이옥녀 원도화
 천순자 정봉조 정선화

16. 남전도회

회 장 : 김기정 부회장 : 이원철
 서 기 : 신영대 부서기 : 오정수
 회 계 : 손동운 부회계 : 김원선

17. 여전도회

회 장 : 김봉재
 부회장 : 이옥녀 안윤진
 서 기 : 이정애 부서기 : 이신일
 회 계 : 김순애 부회계 : 김상순

18. 산업전도회

회 장 : 김종석
 부회장 : 한경일 노영숙
 서 기 : 김은호 부서기 : 오정현
 회 계 : 김영근 부회계 : 최상규

19. 권사회

회 장 : 이영주
 부회장 : 전순자 양정백
 서 기 : 이덕순 부서기 : 백국심
 회 계 : 신군자 부회계 : 안인현

오늘 세번째 선교주일

—선교특강 및 선교영화도 상영—

이미 파송된 6명(목사 4명, 평신도 2명)의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지원은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우리교회로서는 모든 성도들의 해외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물질양면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같은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는 매년 1월중에 『선교주일』을 지켜 해외선교의 중요성과 협력방법을 호소하기로 하고 1975년 1월 19일을 첫 선교주일로 지키며 뜻 있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올해는 세번째 맞는 선교주일로 대에배는 물론 주일학교 각부가 해외 선교를 주제로 선교를 하게 되며, 새로이 선교회원을 모집하고, 저녁에는 선교 헌신예배를 드린다. 또한 오후 3시부터는 본당에서 현재 브라질 아마존강유역 주재선교사인 김성준 선교사를 모시고 선교 특강 및 선교영화도 상영한다.

올해 교회예산 1억8천만원 승인

—1월 9일 공동처리회서 특별회계 3억1천만원도—

지난 1월 9일 Ⅲ부 낮예배 후에 열린 공동처리회에서는 1977년도 우리교회 경상부 세입 및 세출예산 1억 8천만원(W183,678,139)을 제정위원회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이는 1976년 세입예산 1억 3천만원(W132,000,000)보다 39%가 증가된 액수이며, 실수입 1억 6천만원(W165,501,663)보다는 18%가 증가된 액수이다.

또한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중현동산에 총 건평 780평 규모의 「중현기도원」신축예산 7천 8백만원을 비롯하여 논현동의 성전신축기금조성 2억원등 모두 3억 1천만원(W314,081,611)의 세입 및 세출예산도 제정위원회의 원안대로 모두 승인하였다.

어려운 성도들에게 따뜻한 손길

—지난 성탄절 교회와 주교각부서—

당회 구제부에서는 지난 성탄절에 어려운 성도의 가정 일백여세대대에 대하여 따뜻한 구제의 손길을 베풀었다. 쌀 1말과 쇠고기 2근씩을 각 가정에 전달하고 위로하며 성도의 교제로 더욱 두터이 하였다.

한편 주일학교 각부에서도 각자 부별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따뜻한 구제의 손길을 뻗는데 특히 어려운 환경가운데서로 믿음을 지키며 모범된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위로하였다.

주일날집회 및 헌금통계

<집 회>				<헌 금>			
구	분	남	여	계	구	분	계
예배	주일	93	274	367	주일	I	93,830
	나	389	881	1,270		II	248,000
	저	412	838	1,250		III	309,170
	삼	223	387	610		정사	1,823,403
주일학교	신자	291	718	1,009	탄원	조	103,000
	신아	12	10	22		생	560,810
	아	19	29	48		경	28,000
	초	30	31	61		전	30,000
	년	119	104	223		성	10,000
	등	126	136	262		신	14,000
	부	176	157	333		미	940,035
	부	167	171	338		동	120,000
	부	86	82	168		수	1,865
	부	52	73	125		산	15,155
	부	26	217	243		자	21,305
	부	19	57	76		부	15,380
	부	9	50	59		처	18,262
계				2,299 4,275 6,574	계		
					4,433,016		

신금별 교인 통계

남/여

총세대수	교인총수	세	레	아	세	학	습	원	인
2,474	2,265/3,475	1,276/2,369	273/211	230/333	486/562				

*1977. 1. 2 현재 통계(매월 첫주 기준)

<해외선교 소식>

활발한 선교활동

—12월 보고 요약—

1. 홍콩(홍콩만 선교사)

교인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홍콩을 8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각 구역장과 부구역장을 임명하였다. 한국교민의 가정에 성탄인사를 겸한 전도문 350매를 발송하였다. 12월 18일에 학습과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학습 9명, 입교 1명, 세례 1명, 유아세례 2명이었다. 성탄헌금 가운데 성탄축하행사비용을 제한 약 20만원을 홍콩정천자사회에 보냈다. 공동의회서 결정된 1977년도 예산 총액은 1,130만원이다. 월간총헌 12월호와 주보는 잘 받았고 특히 성탄선물과 카드를 보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인출석수는 어른 주평균 100명, 어린이 주평균 30명정도이다.

2. 일본(유명세 평신도선교사)

2차에 걸친 정성어린 선물을 받고 보니 감격하여 몸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12월호 월간총헌과 주보도 반가히 받았다. 이제야 겨우 일본인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인간적인 감정이 통하여지는것 같다. 일상환자 진료중 대화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증거한다. 12월 19일 히로오교회서 아침 집회 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요1:1-14)”이란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병원 대합실에 전도지를 비치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접 전도지를 주며 전도하고 있다.

3. 아르헨티나(신동수 평신도선교사)

보내주신 선물에 감사드리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현지 선교활동과 청소년, 어린이 그룹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12월 12일에는 브에노스 아이레스 중앙교회 학생회에서 설교하였다. 매주 주보와 월간총헌, 전도지, 예수님그림(대형)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4. 독일(육호기 선교사)

12월 23일 임지에 무사히 도착하고 도착예배를 드렸고 독일 병원을 방문하여 위로 전도하였다. 또 한국인 간호원 40여명을 만나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었다.

*인도네시아 소식 미착.

토막소식

*교회는 지난 12월 교회업무연락용으로 지프차 1대를 매입하였다. 또한 운전사로 윤두호(28세)씨를 채용하였다.

*교회는 청년동산 관리인으로 김창배 장로를 채용하였다.

*교회는 지난 1월 19일부터 노인 심방을 실시하고 있는데 오는 2월 2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성경학원이 주관한 1977년도 단기 수련회는 7일부터 11일까지 은혜중에 마쳤다.

*성경학원 지도자양성부 제11기가 지난 1월 23일 개강되었다.

*영아부는 1월 한달동안 교사심방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부는 오는 2월 한달동안 어린이 대심방을 실시한다.

*중등부는 오는 2월 6일 반별찬송가 부르기대회를 연다.

*고등부는 오는 2월 24일 일영에서 성가대친목회를 연다.

*고등부는 오늘(30일)오후 고등부 교사 자제연수를 실시한다.

*대학부는 오는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조장훈련을 실시한다.

*대학부는 오는 2월 20일 먼러회 학술부 주최로 심포지움을 열 예정이다.

*산업전도교육부는 오는 2월 13일 이경철 전도사(대린 맹인훈련원 담당전도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직장 신앙생활지도 및 전도훈련을 위한 특강을 열 예정이다.

*산업전도교육부는 오는 2월 27일 독서발표회를 열어 신앙서적 읽기 권장과 발표력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부는 지난 1월 16일 「각종 기독교단체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김차생 집사를 강사로 하여 특강을 열었다.

*청년부는 오는 2월 4일 유치부실에서 정기철야가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청년부는 오는 2월 20일 청년부실에서 설교발표회를 가진다.

*장년부는 오는 2월 27일 학생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반별 찬송가 부르기대회를 연다.

*노년부는 오는 2월 20일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명을 새롭게 가지기 위하여 윤영탁 교수를 강사로 「교회관」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연다.

제철학교(겨울) 개교

—지난 1월 17일 고등부 수양회를 선두로—

1977년도 겨울 제철학교가 지난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고등부 동기 수양회를 선두로하여 1월 24일~26일에는 유치부 겨울성경학교 1월 25일~28일에는 초등부 겨울성경학교가 열렸다. 기타 각부가 계획하고 있는 겨울제철학교 일정과 장소, 강사, 내용등은 아래와 같다.

1977년도 주교각부 제철학교(겨울)실시일정표

부별	실시기간	장 소	강 사	주 제	주제성구	주제찬송
영아부	(2일) 2. 24-25	영아부실 유치부실	①윤형철 ②김중택	내 일은 내가 할래요	빌 4:11	
유치부	(3일) 1. 24-26	유치부실	①윤형철	하나님의 나라	요 3:3	새 224
유년부	(4일) 1. 31-2. 4	유년부실	①김영휘 ②정기성	하나님의 나라	롬 14:17	미 정
초등부	(4일) 1. 24-27	초등부실	①김재창 ②김태현	하나님의 나라	눅 17:21	새 486
중등부	(3일) 2. 26-28	본 당	①박희천	하나님의 사람은?	딤후 6:11-12	새 642
고등부	(5일) 1. 17-21	본 당	①김창인 ②김성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딤후 3:15	새 222
대학부	(4일) 2. 15-18	한 일 산	①석태운	미 정	미 정	미 정
어새부	유초준합	유초준합		유초등부 준합	유초 준합	유초준합

1977년도 제직 및 봉직자 임명

—권사 15명, 집사 560명, 교사 396명등—

1977년도 시무권사 및 서리집사 575명에 대한 임명이 지난 해 12월 5일 시작되어 12일에는 구역장 및 권찰 임명, 19일에는 주일학교 교사 임명, 26일에는 성가대원 임명이 각각 3부예배 시간에 있었다.

이를 각각 구분하여 보고 아울러 당회원 및 교역자의 수를 파악해 보면 1977년 1월 1일 현재 다음과 같다.

위임목사 김창인, 시무장로 28명(각기관 역임원 당회 참조), 공로장로 3명(강지순, 오중락, 김천준), 부목사 6명(백성룡, 김재창, 정상우, 김중택, 정기성, 정관일), 선교사 4명(서만수, 홍종만, 이연호, 육호기), 강도사 1명(김태현), 여전도사 8명(이두란, 김재일, 최순복, 강봉선, 구명선, 김경성, 정연희, 정소영), 공로전도사 2명(김연순, 이명달), 교육전도사 6명(이정웅, 김영휘, 윤형철, 이승근, 이준교, 김수성), 시무권사 14명, 명예권사 1명, 서리집사 560명(남 160명, 여 400명), 92개 구역의 구역장 92명, 권찰 350명, 주일학교 교사 396명(남 166명, 여 230명), 제일성가대 71명, 여성성가대 59명, 제이성가대 48명이며 교회 유급직원은 모두 14명이다.

「월간 총현」 편집위원장 교체

—위영환 장로 후임에 송순일 장로—

「월간 총현」의 질적·양적인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던 위영환 장로 후임으로 송순일 장로가 임명되었다. 1975년부터 1976년까지 편집위원장으로 봉직하던 위장로는 「월간 총현」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해외복음선교회 회장으로 전임되었다. 한편 주간으로 수고하시던 신성중 목사 후임으로는 대학부 지도인 정관일 목사가 임명되었다.

기 자 석

○...제작년 제주도라는 호기심 하나만 가지고 멋모르고 열 몇시간을 가는 초행 뱃길에 올랐다가 어처구니 없도록 심한 뱃멀미를 만났던 일을 생각해 본다. 이렇듯 오직 「일해야 한다」라는 자각 하나만 가지고 시작했을 뿐 목적의식과 사명감이 부족했고 시들었던 지난 경험은 이제서야 본격적인 곤욕을 치르게 될 것 같다. 어쨌든 들길을 걸어가야겠다. 가다 어두워지면 손에 등불을 켜고서라도.

○...동안 밑 어두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의미의 출발과 다른 각도로, 여러가지 형태로 조망할 수 있는 「충현」을 지켜보는 눈을 지닐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선 내 영혼의 어두움부터 살핌과 만나야겠고 늘 깨어 있는 눈과 항상 열려 있는 왼쪽 더운 심장을 사랑해야겠다. 두 손이 마주쳐야 비로소 소리가 난다는 병법함을 위하여 누구의 말처럼 멜로디가 끝난 후의 더욱 풍성한 여운을 위하여, 쓸개포도의 비애를 맞보지 않기 위하여. <인숙>

○...오늘과 내일의 생활이 심한 변화 없이 이어지기에 세월의 흐름을 의식하지 못한 채, 생활해 나가나보다. 허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무척이나 심한 변화를 느낀다. 이렇기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식도, 교양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신앙생활 역시 나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급작스런 변화를 주실 때 겪어야 되는 역경은 까마득히 잊게 된다.

○...형식적인 기도에서 주님과 대화로, 감정에 치우쳤던 찬송소리가 주님께 대한 회개로 바뀔 때, 우리는 즐겁고 기쁜 생활로 서서히 변화될 것이다. 짐재같은 파도를 만나면 주님께 속해 있고 잔잔한 물결을 지날 땐 세상에 속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만 근심 없음을 확신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면 오늘과 내일의 신앙이 침착한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미숙>

○...“메밀묵 사요!” “참쌀떡!” 고요한 적막을 깨는 인생의 가치있는 최선의 소리가 들린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양다리를 쭉 펼치고 고된 하루의 피로를 잊으려는 순간에 들리는 부르짖음일 것이다. 아니! 어쩌면 삶의 외침일지도 모른다. 이 소리의 주인공은 아마도 남들이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내일의 삶을 위하여 잠자리에 누울 이 시간에 보람된 생활이 시작이 되는 시간일는지 모른다. 무엇 때문에 이 주인공은 남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일까? 주어진 환경 때문일까? 돌아가는 세상에 적응을 위하여? 아니면 고요한 적막의 세계를 그리워서일까? 무슨 이유든 분명 있을 것이다. 그 친구는 부모가 계실까? 형제가 있을까? 따뜻한 안방의 아랫목이 있을까? 아니면 산골의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골방의 차가운 윗목이 그 친구의 안식처일까? 나의 마음은 이 시간만 되면 미치도록 적적하기만 하다. 그 친구를 우리 집으로 불러서 내방의 솜이불 위에 앉혀놓고 무엇인가 인생의 참된 가치있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싶다.

○...“당신 예수가 누구지 아요?” “모르면 내가 소개해 주리이다” “아뇨! 약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니면,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소?”

그 친구의 대답은 이러했다.

“이 참쌀떡이 아주 맛있어요. 이 메밀묵은 아주 꿀맛이라우. 자요, 잡썬 봐요. 자, 얼마나 사시겠썬.” <호원>

권정호고 나서

*...매년 성장·발전하게 됨을 진정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어인 3년째로 접어드는 「월간 충현」의 정착작업이, 첫째의 월간 발행 16년의 목표를 달성했고, 두번째 해에 오프셋표지, 20년의 성과를 올렸고, 금년엔 28년의 증면으로 또 하나의 발돋움을 하고 있다. 그 동안에 여러 교우들의 성원과 교회의 깊은 이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8면의 증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항상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가장 어려운 인적자원의 부족을 미리 훈련하여 준비시켜 놓았던 일꾼들로 채워주셨다. 성주진·고계원·강호원·유미숙·홍지향의 동지들은 어찌 월간 증면 편집일에서만 기뻐할 일인가.

*...조금씩 안정 속에 금년의 목표는 알찬 내용이다. 몇가지 새 기획물들이 필자의 사경상 다음 호부터 나가게 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여문에 의해 교회의 뉴우스를 증가하고 독자들과의 대화의 광장을 마련했고 1200자 칼럼의 문을 넓혔다. 우리 앞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려져 있는 1977년의 하루 하루를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 뛰어 볼 생각이 다. <형수>

표지 설명

선교의 문을 연지 5년만에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선교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1976년 10월 25일 해외에 설립된 본 선교관의 모습이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 중에 중요한 일중의 하나는 해외선교에 관한 것이다. 새로 선교지의 확장과, 이미 파송된 선교사들의 정착화 등에 보탬이 관심을 갖고 이해하야 할 것이다.

충현교회
기관지

월간 충현 조직표 (1977년)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위원장)/송 순 일
주 간/정 관 일 편집국장/조 선 군
편집위원/송순일·조현명·정상우·정관일·이두관
 윤형철·이정웅·조선근·김차생·손명순
간 사/정은표·이형수·오태용
기 자/고계원·성주진·정윤명·강호원·안영자·김인숙
 유미숙·홍지향

월간「충현」1월호 통권 제37호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송 순 일

주 간/정 관 일

편집국장/조 선 군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56

27-9937·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7년 1월 30일 발행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 지난 12월 20일 서독으로 파송되어 떠나는 육호기 선교사 (가운데)가 김포공항에서 해외복음선교회 위영환 회장의 격려와 환송을 받으며 웃음짓고 있다.



➡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선교관 개관식이 지난 해 10월 25일 당회장 김창인 목사가 친히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배풀어졌다.



➡ 충청남도원 시공예배가 지난 12월 6일 경기도 대성령리에서 거행되었다. 이것만 완공되면 그토록 바란 기도회·수양회 장소로 활용되어 장소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된다.



➡ 개관식에 하루 앞서 서만수 선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당회장 김창인 목사가 기념식수를 정성껏 하고 있다. 이 꽃나무는 화분에서 1년간 자란 노랑색 무궁화라고.



➡ 기도원 시공예배 후 (좌로부터) 동산관리위원장 한명욱 장로, 건축위원장 김기정 장로, 부목사 백성룡 목사 등 여러분이 첫 삽을 뜨고 있다.



생명의 빵

그는 굶주림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다.
때문에 따라오는 수천의 우리들을
힘 주고 키우시기 위하여
물고기와 빵을 나누어 주셨다.

그는 돼지먹이 콩을 헤칠 정도로
굶주림을 느끼는 영혼의 아픔을 잘 알고 계셨다.
때문에 찢긴 살과 그 사이에서 떨어지는 피를
산 빵과 산 피로 우리에게 주셨다.

※ 레슬리 클라아크 (Leslie Clark) 의 시.
「기독교 명시선」 중에서.